

# ‘온정 있는 나눔’ 물품·식사·주거까지 희망 전해

## 재능기부 스토리

### 낙서 가득했던 벽지에 핀 ‘희망’

오피스넷스 광주점 김덕관 대표께서 A4지와 생수, 종이컵, 화장지, 키친타올 등을 광주재능기부센터에 기부해주셨습니다.

김 대표께서는 정기적으로 광주재능기부센터를 통해 다양한 물품들을 기부해주시고 계시는 마음 따뜻한 분이십니다.

오피스넷스 광주점은 ‘사회적 기업’으로 광주 전역에서 주문 배달 가능하고 조달 등록도 돼 있습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물품을 기부해주신 오피스넷스 광주점 김덕관 대표님 감사합니다.

하며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최근 광주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용강추어탕’ (대표 이경모)에서 ‘또 하나의 테이블’을 마련해주셨습니다. 모 장애인시설에서 오신 장애인 3명과 직원 1명 등 총 4명이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가득하여 배부르게 많이들 드셨습니다. 좋은 추억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테이블에 참여해주신 ‘용강추어탕’ 이경모 대표께 감사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이 계속 찾아와 힘들게 했습니다. 아예 먼 곳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해 광주로 이사왔습니다.

이 여성은 이사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다. 병원가서 검사를 해보니 임신 6개월째라고 합니다. 매달 산부인과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비가 부담돼 모 가족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가족센터에서는 광주로 전입신고를 해줬습니다. 덕분에 생활에 도움을 받고, 병원비 지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생활난은 해소되지 않았습니



노트북을 기부해 준 금호동 먹자골목 인생돼지 본점 한상진 대표.

## 폭력 피해 극복 안간힘 이주여성에 따뜻한 손길 “혼자가 아닙니다” 식당 업주들 차려낸 ‘또 하나의 테이블’ 장애인시설 이웃들께 한끼

선수용 휠체어가 필요하신 분은 신청하세요. 광주공유센터에 있으며, 직접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광주공유센터는 광주 남구 화산로 30 진원국제테니스장 지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전화 접수 (062-431-0918)만 가능합니다. 댓글, 문자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금호지구 먹자골목에 위치한 ‘인생돼지 본점’ 한상진 대표께서 노트북을 기부해주셨습니다. ‘인생돼지 본점’은 광주 서구 금화로 85번길 30-2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을 기부해주신 ‘인생돼지 본점’ 한상진 대표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광주재능기부센터에서는 ‘또 하나의 테이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테이블’은 음식점이나 카페 등 영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 한 달에 한 차례 지치고 힘든 분들을 초대, 한 테이블에 정성스러운 음식이나 차를 대접

의 인사를 드립니다. ‘용강추어탕’은 광주 남구 용대로 71 (봉선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온고당’ (대표 임흥철)에서도 ‘또 하나의 테이블’을 마련해주셨습니다. 이곳 역시 모 장애인시설에서 오신 장애인 3명과 직원 1명 등 4명이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의 테이블에 참여해주신 ‘온고당’ 임흥철 대표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온고당’은 광주 서구 개산길 13-11 (매월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0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소식입니다. 이 여성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10여년 전 한국으로 시집 와서 자녀를 출산하고 생활해 오던 중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가정폭력쉼터에 입소했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지나 퇴소하고 혼자서 집을 얻어 생활했다고 합니다.

다. 이 여성은 같은 국적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서 생활했지만 그마저도 다 써버려 지금은 당장 먹을 것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센터에서 광주재능기부센터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광주재능기부센터에서는 쌀과 간편식, 그리고 식품류와 생활용품들을 지원했습니다.

이 여성은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경제적 여건도 안 되어서 너무나도 힘든 상태였다”면서 “언제 남편이 다시 찾아오는 걸까 하는 불안감으로 매일 힘들게 지내왔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이 여성이 빨리 안정을 찾고 편안한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도움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30대 후반 김모 여성 가정에 대한 지원 소식입니다. 김 씨는 결혼이주여성으로 한

국에 시집을 와서 두 명의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남편과 두 자녀와 함께 생활하던 중, 둘째 아이가 자라면서 이상행동들을 보여 검사해보니 자폐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둘째는 심한 자폐증상으로 인해 돌발행동들을 일삼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쳐 사과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잘 나가지 않고 주로 집 안에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곳곳에 심한 낙서를 하고 벽을 날카로운 것으로 찢러 구멍을 내는 등 이상행동이 이어졌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종이를 덧대보기도 하고 판자로 막아 놓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

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낙서하는 습관이 찾아들기는 했지만 온통 집안이 훼손돼 보기 안 좋았습니다.

큰 아이의 정서적 문제와 낙서로 얼룩진 벽지를 보면 또 다시 낙서를 시작할 것 같아 도배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도배공사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하면서 재능기부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광주재능기부센터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행복한 목수’ 사업을 통해 도배 교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새집에 입주할 것처럼 깨끗하게 변한

집을 본 식구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낙서를 했던 둘째에게 또 낙서를 할 거냐고 물어보았는데 앞으로는 절대 낙서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약속을 지키라’며 손가락을 걸고 즐거워했습니다.

김씨 가정에 큰 기쁨을 선사해 준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박병철 회장과 문찬주 사무처장, 그리고 임직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장우철 광주재능기부센터 대표

▶문의사항 (기타 문의도 가능) ‘광주재능기부센터, 나눔 NJOY’ 전화 : 062-431-0918

#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 실현을 최우선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DH Group

